

고린도전서 1:2에서 사도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연합”이라고 정의합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를 잘 담아낸 우리 교회의 이름인 ‘한우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 공동체임을 상기하게 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합이 정체성인 교회 안에서 실제로 연합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합을 방해하는 악한 공격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빌레몬서는 교회의 하나 됨과 연합을 위해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봄, ‘한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필요한 회개, 결단,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며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오네시모가 도망치게 된 것에 대해 빌레몬에게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서를 작성하면서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 도망치게 된 이유는, 빌레몬이 악한 주인이서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악한 마음을 품고 빌레몬의 재산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가진 재력, 인력, 영향력을 사용하여 오네시모를 잡아 처벌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며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믿음의 한 형제로 용납할 것을 부탁하고 있고, 이 편지를 빌레몬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빌레몬 또한 예수님을 통해 자격 없는 용납과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레몬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용납과 용서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용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빌레몬서 1:15-16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배신한 것도, 그리고 빌레몬을 떠나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오네시모가 한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빌레몬에게 용서를 빌러 돌아와 있는 것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납해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주신 연합의 기회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 빌레몬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에게 일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다시 내 눈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연합의 기회가 아닌 분노와 증오가 더 폭발하게 되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다윗과 시므이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바라보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를 용서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하게 연합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연합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할 것을 부탁하면서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나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이나 빚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기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영적으로 빚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합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여 기꺼이 제거하겠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쉬지 않고 피를 공급하는 헌신적인 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하는 고단한 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모두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심장의 역할, 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내가 아닌 누군가는 할 것이요?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먼저 연합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희생하고 헌신 하자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 하며 빌레몬이 자신의 권면에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오네시모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빌레몬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알고 있기에, 그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연합의 기회로 여길 것을 알기에, 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자임을 알기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했듯,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그 편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레몬에게 부탁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를 용납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우리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9/23(월)	9/24(화)	9/25(수)	9/26(목)	9/27(금)	9/28(토)	9/29(주일)
단 3-4	단 5-6	단 7-8	단 9-10	단 11	단 12, 호 1-4	호 5-9

QT

이번 주 QT 말씀

9/23(월)	9/24(화)	9/25(수)	9/26(목)	9/27(금)	9/28(토)	9/29(주일)
느 11:10-21	느 11:22-36	느 12:1-21	느 12:22-30	느 12:31-47	느 13:1-9	느 13:10-22

나눔

목장 나눔 문제

-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 교회 내에서 빌레몬과 같이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나요? 누군가를 바라보며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 결단, 변화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 자신을 저주하고 돌까지 던진 시므이를 바라보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시므이를 만났을 때 그를 용납하며 복수가 아닌 연합의 기회로 삼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였는데 분노와 분열의 기회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의 기회를 분열과 분노의 기회가 아닌 연합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요?
- 바울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금전적인 피해를 기꺼이 자신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18절). 바울과 같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본 적이 있나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의 어떠한 영향을 끼쳤나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연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